

“변해야 산다”… 주요기업, 사업·공급망 포트폴리오 쇄신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일로
자산 매각, 감량 경영 등 단행
“산업 구조조정 방향 고민해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기하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강력한 쇄신 정책에 돌입했다. 대내외 악재에서 생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 감량 경영 등을 단행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과 0%대 국내 경제성장률이 부각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상대적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 결과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3%로 나타났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미국 고율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SK 서린사옥 전경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연초부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SK그룹은 리밸런싱(구조조정) 일환으로 SK실트론을 매각한다. 매년 흑자를 기록한 ‘캐시카우’지만 SK그룹의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계열사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의 총 4조4459억원이다.

SK그룹의 2024년 연결기준 매출은 124조6904억원으로 2023년(128조7984



LG트윈타워 전경

억원) 대비 3.19% 줄었고 영업이익은 2조3552억원으로 2023년(4조7539억원) 대비 50.46% 급감했다. 무리한 외형 확장으로 중복된 사업이 발생했고, 덩치에 비해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LG그룹은 최근 계열사별로 저성과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관련 사업을 매각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의 한 분리막 생산기업과 추진하던 합작법인 설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사장단 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이후 첫 구조조정 사례다.



포스코 본사 전경

또한 LG전자 에코솔루션(ES)사업 본부 산하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선언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1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밸류체인 가치사슬 구축 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6개 자산을 매각해 총 2866억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연말까지 총 2조1000억원의 누적 현금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철강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수익성 낮은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

해 한 경기상황에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한화솔루션도 전기차 충전사업 철수, 현대제철은 현대IFC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않다.

부진한 주가 흐름과 경영진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 과도한 차입에 따른 빚 부담 등 일반 주주보다 대주주 이익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국내 산업계는 기술 투자, 업종별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 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률이 낮을 때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산업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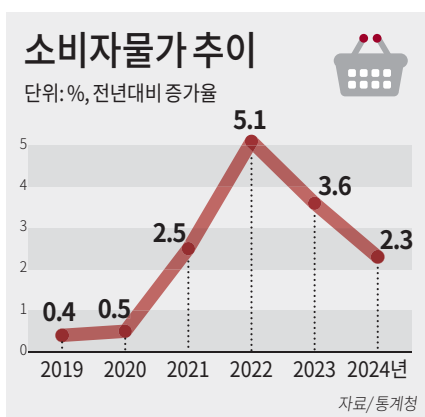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물가·금리 못 따라가는 소득… 금융시장 불안감 고조

가계차주 대출잔액 6분기 연속 증가
카드사, 리볼빙 등 연체율 지속 상승

제로(0) 성장의 시작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6%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2019년(0.4%) 물가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가 안정을 위해 울려퍼졌던 금리는 더 이상 내리지 못해 부채 상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 리스크와 미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체감경기를 낮춰 소비자들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9~12월)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1.2%(달러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 올랐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 물



가가 더 빨리 상승했다는 의미다.

빠르게 오른 물가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켰다. 지난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0.3%)과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 등 내구재(-3.1%)와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1.4%), 의복을 포함한 준내구재(-3.7%) 모두 1년 전보다 판매가 줄었다.

높아진 대출금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33만원이다.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6분기 내내 늘었다.

지난해 12월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58%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2021년 8월(연 2.87%)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높다. 이자가 높아지면서 매달 내는 원리금 또한 늘어난다.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감소는 중산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3분위는 전체 가구 중 소득 수준이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다. 소득 대비 이자 비중은 4분위(2.7%), 1분위(2.3%), 2분위(2%), 5분위(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소득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3~4분위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다.

처분가능소득도 중산층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있다. 3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51만5000원으로 1년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5분위(상위 20%)가 4.9%와 1분위(하위 20%)가 4.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중산층은 소비의 주요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줄어 들면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 또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위축되면 미래세대의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의 연체율은 카드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에서 모두 상승한 상태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1년 전(1.31%)보다 올랐고,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1.56%에서 1.61%로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연체율이 2.15%로 전년 동기(1.94%)대비 0.21%p 올랐고, 우리카드는 같은 기간 1.47%에서 1.87%로 상승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하므로, 취약계층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렵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정부는 복지지출 등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며 “중산층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성장 만성화’ 우려 확산… 유통업계, 국면 타개책 고심

인력감축, 가격인상 등 위기 대응 나서

대한민국이 0%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성장 만성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가계 기업등 경제 주체들의 살림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우선 정부 곳간이 말라간다.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17조9000억원 나라살림 적자를 냈다.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은 뒷걸음질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2022년(3만4822달러)보다도 낮다.

유통 기업들은 내수 시장 최전선에

있는 만큼 저성장으로 인한 시장 타격을 그대로 맞고 있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GDP)가 올해 1분기 -0.2%로 떨어지면서, 소비 시장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유통업계가 위기 국면 타개책을 고심하고 나섰다.

전반적인 대응 기조는 외형 줄이기다. 대표적으로 최근 롯데그룹은 자회사별 희망퇴직을 단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 계열사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인력 효율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면세업계 상황 역시 심각하다. 저성장 국면에 국내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실적 부진에 빠진 것이다.

실제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사는 호텔

신라 장기 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했다. 면세부문의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영업수익성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에 면세점도 비효율 자산을 매각하고, 희망퇴직을 통해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대표적으로 현대면세점은 희망퇴직과 동대문점 매장 폐점, 시내 면세점 운영 축소 등을 동시에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효율화 추진에 나섰다.

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도 온라인 시장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백화점은 -18.8%, 백화점은 -3.6%,

편의점은 -4.6% 감소세를 보였다.

지속되는 침체 국면에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면서, 개인 역시 긴축 상황에 놓였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음식 및 숙박이 3.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2.4% 올랐으며, 의류 및 신발 가격이 2.0% 상승했다.

이같은 돈백경화현상에 유통기업들은 일제히 가격 상승을 단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 미네타이드 등 일부 품목 출고가를 내달 1일부터 평균 5.5% 인상한다.

담배 가격도 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는 내달 1일부터 담배 가격을 최대 200원 인상한다. 대표적인 인상 품목은 ‘메비우스 엘비에스(LBS) 시리즈 5종’과 ‘메비우

스 이스타일 6’, ‘이스타일 3’, ‘카멜 블루’와 ‘카멜 필터’ 등이다. JTI코리아의 가격 인상은 10년 만이다.

대형 부티 업계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다.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는 자음2중 세트 가격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 인상했다.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비온드는 13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린 데 이어 오는 5월에는 4개 제품 가격을 최대 1000원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 유통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긴축 경영 상황”이라며 “경영 효율화로 대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이상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청하·안재선기자 mlee236@